

익산시, 대형 사업 발굴 '젠걸음'

익산정책연구소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대규모 국책사업 15건 타당성 논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탄핵 정국 속에서 익산시가 공약으로 쓰일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발빠르게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원광대학교 익산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굴한 대규모 국책사업 15건에 대해 타당성을 논의했다.

우선 시는 △익산 왕궁 에덴프로젝트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 △호남고속선(천안아산~익산) 직선화 △익산 오산~김제 철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대형 발굴 사업 11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중 '익산 왕궁 에덴프로젝트'는 왕궁 정작농원 일원에 2,000여 원을 투입해 온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국 콘월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에덴프로젝트의 뒤를 이어 생태계 복원의 명소를 거듭날 수 있게된다.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은 인간과 자연, 동물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원헬스' 관점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익산은 교통 여건이 편리하고 농생명 바이오 혁신 기관이 집적해 관련 산업과 기반 마련에 유리한 조건



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원광대 익산정책연구소는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익산의 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제이민 교육연구타운 조성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K-줄기세포이니셔티브 구축 △고령 친화 창업지원센터 등 4개 사업의 내용을 공유했다.

'국제이민 교육연구타운'은 이민자 등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사회 적응 상담과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채널, 사회적응훈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연수 클러스터의 개념이다. 이주배경인구와 원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문화소응성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해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시는 앞으로도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발굴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기 국정운영 방향에 적합한 과제로 가다듬어 나간

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익산정책연구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선 공약에 쓰일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익산정책연구소장은 "바이오와 치유, 디지털, 문화관광, 외국인, 철도 등 익산의 지역색이 담겨있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강력히 견인할만한 보석같은 사업을 잘 가려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관광객 1000만 시대 연다

2024년 관광객 500만명 돌파... 작년 대비 67% 증가

맞춤형 관광 상품 강화... 개인·단체 여행객 유치 확대

익산시가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12월 기준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관광객 수인 300만 명보다 67%가 증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발판으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콘텐츠 중심의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체험형 행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여행 등 여행차별 맞춤형 상품을 운영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익산시는 한국관광공사 제시한 관광 추세(트렌드) 중 '힘이 있는 여행'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치유 성지순례 관광 '4대종교 문화체험 다이로'를 익산여행'은 매년 입소문을 타고 예약 조기 마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참여로 이어졌다.

시는 철도교통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열차 이용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섰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협력해 △에코레일열차 △특급열차 △이트레일 등 임시 관광열차를 운영했다. 또한

철도여행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 관광 '달마(달려라 마룡) 응원단 투어' △9경 3라 익산 기차여행 △익산 고백(GoBack) 여행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였다.

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에도 힘썼다.

서동축제, 익산 문화유산 야행, 마루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축제와 지역 명소를 연계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케이(K)-관광로드쇼 참여해 백제의 다양한 흔적이 살아있는 익산을 홍보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한 곳인 (주)한류교통사를 통해 유네스코 유산 패키지 특별 기획 상품을 출시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오는 31일 있을 제야의 종 타종식과 1월 1일 백제왕궁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관광지 개발과 여행 상품 운영에 돌입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올해 다양한 관광상품, 축제, 행사 운영을 통해 500만 관광도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통합 일자리 센터

착공... 내년 11월 개소 예정

익산시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위한 '익산 통합 일자리센터(가칭)' 구축 공사에 착수한다.

지난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새롭게 조성되는 일자리센터는 신청사 이전으로 비어 있는 (구) 익산시청 제2청사로, 시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11월 말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는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청년 일자리센터(중앙동) △신중년 일자리센터(여암동) 등을 한곳에 모아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구직 상담, 취업 알선, 직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일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업을 위한 공간도 7실을 조성해 창업 기반을 확대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센터를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시민의 취업을 제고를 동시에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채소·과수 등 소득작목 분야 13개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27일 을 한 해 동안 추진한 채소·과수 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소득작목 분야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올해 채소·과수 분야 시범사업 대상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가회는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추진한 과수 분야 시범사업 중 국비 사업인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사업'과 시비로 추진한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 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은 재배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평가회 종료 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시범사업 평가회에서 제안된 농가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국비 1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5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채소, 과수 분야 15개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 간담회

유관 기관·단체 경제 협력체계 구축·부서별 추진방안 논의

군산시는 지난 27일 경제항만국장 주재로 군산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 간담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국 혼란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비하고자 민·관 경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유관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앞서 12일 비상시국 대응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다.

경제항만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총괄반, 농·축·수·임산물반, 물가조사반으로 3개 반,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생활물가 품목 가격, 개인 서비스 요금, 농·축·수·임산물의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 3종(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25년 1월 추가경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240억원(소비촉진 202억원, 소상공인 지원 38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2025년도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구매 한도 상향(4,000원 원 발행, 월 구매 한도 50만원) △골목상권 소비 촉진 지원(상품권 10% 캐시백, 월 최대 2만 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5,000만 원 대출 한도, 자부담 초과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이차보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업체당 30만 원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 원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1만 원 정액 장려금 지원)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추가 발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배송지원(소규모 점포에 공동물류 배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우수 성실납세자 표창 수여

법인-에스지씨에너지·동원시스템즈·선광, 개인-박성주·장원주

군산시는 지난 2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 성실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표창 대상자는 법인 3곳(에스지씨에너지(주), 동원시스템즈(주), (주)선광), 개인 2명(박성주, 장원주)이다.

우수 성실납세자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매년 납기내에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5백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로 납부액 및 지역 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우수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 외에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조건 완화 △근대역사박물관 등의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법인의 경우 지



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납부해주신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친환경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 적극 나서

군산시는 지난 27일 해양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 부표 보급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2025년부터는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되기에 원활한 인증부표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바다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